



## 우리농업의 유일한 대안이 자연순환농업이다.

교수 류원 중  
상지대학교 친환경식물학부

### 물질이 순환되지 않는 농업의 역작용

현대농업의 근원적인 문제는 물질 순환이 되지 않는 농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농경지에 환원되지 못하여 환경오염원이 되고 농경지는 유기물이 부족하여 병충해의 피해와 지속성 있는 농업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경종농업과 축산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도작 중심의 농업으로 발전하여 왔다. 최근 육류소비량의 증가와 함께 축산이 증가되고 있으며 농가 소득원으로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문제는 축산분뇨의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경종농업은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0년 간 우리나라의 농업은 다수확을 지향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농업을 경영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흙을 생각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차원의 자연순환 농법을 해야 한다. 순환농업은 작물 재배와 가축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토

양-식물-가축의 통합된 시스템이다. 순환농업은 물질순환과 토양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수입개방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순환농업이므로 축산과 경종농업의 단절된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회복하자**

수입개방의 파도를 넘자면 우리 농산물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안정성이 높은 농산물은 결국 자연순환농업 체계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농림부가 최근 순환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안 그림을 만든 것은 엄청난 성과로 평가된다. 순환농업의 실제적인 성취를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 순환농업의 참여주체인 축산과 경종농업의 행정과, 농민간의 단절된 구조를 새로이 연결하고 복원해야 한다.

◎ 순환농업을 위하여 경종농가가 적극적으로 가축분뇨를 사용하자

◎ 축산농가는 순환형 축산을 위하여 토지 있는 축산을 하여 물질순환을 시켜야 한다. 축산농가는 순환형 친환경축산을 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부숙된 액비,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자.

◎ 가축분뇨 사용 경종농가에 혜택을 주자

**각 지자체는 지역의 양분수지를 관리하고  
자연 순환농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연순환농업의 성과가 지자체의 역할에 달려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양분수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지역별로 가축분뇨가 얼마나 농경지에 환

---

원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순환농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지역별 화학 비료 사용량, 가축분뇨 발생량, 가축분뇨 농경지 사용 면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순환농업이 성공하려면 농경지에 환원되는 양분 수지의 통계관리가 필수적이다.

자연순환농업이 성공하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화학비료 절감과 가축분뇨 경지환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로 하여금 가축분뇨 경지환원에 대한 정책 추진과 양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양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양분관리 지역을 선정하여 자연순환농업 자율사업비를 배정하여 지자체의 양분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고양시킬 때 이 사업이 성공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입 농축산물을 이기는 방법은 안정성이 있는 농축산물 생산과 가축분뇨 환원에 의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높여 화학비료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의하여 토양이 비옥하게 되지 않아 농약위주의 비친환경적인 농업의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축산에서도 비순환적인 집약축산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연순환농법에 의한 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고 땅 살리기 운동의 핵심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에 의한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이다. 자연순환농업에 의한 땅 살리기 운동을 대국민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